

작품 <WAY> 안무 특성 연구

Study on choreographic characteristics of <WAY>

김형남, 김환희*, 김희정**
세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종대학교**

Kim hyung-nam, Kim hwan-hee*, Kim hee-jung**
Sejong Univ., Sejong Univ.*, Sejong Univ.**

1. 작품 이미지



2. 작품 설명

1) 작품 개요

- 공연일시 : 2018년 2월 9일 금요일 오후 8시 | 2018년 2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7시
- 공연장소 : CJ아지트 대학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2길 69 태원빌딩 지하 1층, 2층)
- 공연의도 : 십 대 후반(後半)에서 이십 대에 걸치는, 인생(人生)의 젊은 나이를 청춘이라 칭한다. '열정과 패기' 청춘을 표현하기에 이것보다 더 좋은 단어들이 있을까? 누구나 겪는 혹은 겪어야 할 시기. 인생의 방향기인 청춘을 '길(道)' 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으로 풀어낸다. 작품 <WAY> 는 열병과 같이 뜨겁고 아프지만 그 뜨거운 열이 정열에 불타는 불나방과 같이 남들의 불편한 시선조차 감수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내는 현재와 과거 청춘들의

'꿈, 사랑, 반항'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지금 향해가고 있는 목적지와 그것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신체적 움직임을 이용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해 낸다.

- 공연내용 : 얼마나 떠내려 왔을까? 달빛조차 비추지 않는 캄캄한 칠혹해속 일렁이는 저 파도는 다시 나를 집어삼킨다. 방황하는 불씨 들어 어디로 가야하는지 묻지 마라. 누구도 모르는 이 길 한걸음 걸음 던어내는 걸음 속 가벼운 몸뚱아리 무겁게 심해로 가라앉는다. 숨이 턱 끝에 차니 티끌만한 빛줄기 비로소 내 눈에 비친다. 이곳이 시작인지 벼랑인지 두려움을 뒤로하고 미친 듯 내지르니 어디선가 지퍼진 불씨 하나 푸른 봄날 흩어지는 연기처럼 또 다시 길을 잃고 헤매인다.

-안 무 : 김 환 희

-출 연 : 신 원 민, 최 지 훈, 김 희 정, 심 재 호

2) 장면구성 및 움직임 특성

-장면 1은 WAY에 대한 주제를 표현한 것이다. 무용수가 의자라는 오브제를 이용하여 상수 다운스테이지에서 하수로 이동한다. 동시에 무대에 널려진 옷가지들에 묻혀있던 다른 무용수가 옷을 하나씩 꺼내고 옷을 벗어 모아놓는다. 이 장면은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을 의자를 통해 표현하고 방향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옷은 사랑의 집착을 의미한다.

장면 2의 무용수 솔로는 청춘의 심정변화를 몸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것을 모티브로 몸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움직인다. 또 다른 무용수는 무대를 크게 돌며 달리다 쓰러진다. 이는 솔로를 진행하는 무용수의 에너지와 대조적으로 청춘의 반항을 표현하듯 달리고 있다. 이러한 춤의 에너지와 공간 구성은 '젊음'이 내포하는 불완전성과 열정을 춤으로 표현하고자 한 의도가 담겨있다.

장면 3의 듀엣은 청춘의 우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스텝을 이용한 무거운 움직임으로 든든한 버팀목을 표현하고 있다. 듀엣 이후 무용수 솔로와 무대를 달리는 무용수의 대조적인 움직임으로 무대 긴장감을 높이고 있으며, 반항적인 이미지 표현은 옷을 던지고 무대를 어지럽히며 극대화 된다.

장면 4에서는 두 무용수의 의자를 사용한 움직임으로 소유와 집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 의자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치열하게 밀어내는 각자의 진지한 움직임을 음악(Chopin : Nocturne No.2 In E Flat Major)을 사용해 반어적으로 표현하려 하였으며, 의자위의 움직임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청춘들의 사고방식을 표현하였다.

장면 5의 무용수 솔로는 잘못된 방식의 사랑을 옷에 대한 집착으로 표현하며, 몸을 굽는 부작용을 모티브로 표현적 움직임을 통해 나타낸다. 동시에 트리오의 무용수들이 서로의 몸을 도구삼아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청춘들을 컨텍 움직임으로 표현하며, 시선을 솔로 무용수에게 고정하여 공격적인 느낌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조명의 색과 질감을 다르게 하여 무대를 나눔으로서 대조적인 분위기를 나타내었다.

장면 6의 무용수 네 명의 격한 컨텍 움직임은 강한 집착적 움직임을 표현한다. 데이트 폭력을 모티브로 한 이 장면은 강제적 스킨십을 사랑이라는 명목 하에 상대적 약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나타내며, 밀침과 던짐의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 이후의 무용수 솔로는 본인의 감정이 악의적으로 표현되는 잘못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표현하였으며, 빠른 플로어 움직임과 아크로바틱으로 무대 위에서 경련하듯 표현하였다.

장면 7은 무용수 네 명의 군무로 무용수들 각자의 캐릭터 움직임 성향을 포즈와 포즈로 연결하여 전체 배열 속에서 하나의 유기적 군무 움직임으로 나타내며, 작품 WAY의 주제를 가장 강하게 나타내는 군무이다.

장면 8은 작품의 마무리로 각자의 솔로 움직임으로 전향된다. 무대는 작품시작과 같은 형태로 점차 변화한다. 솔로 움직임은 청춘의 사랑, 집착, 반항, 방황을 미니멀리즘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하여 작품을 마무리 짓는다. 이는 개인성을 크게 띄고 있는 현 사회와 그 속에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청춘들을 나타낸다.

3. 작품 평론

작품 <WAY>는 동시적 장면의 조합으로, 작품의 전반적 흐름을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다. 작품 시작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오브제를 사용하여 무용수들의 움직임은 극대화 시키고 있었으며, 의자, 옷 등의 오브제는 관객들에게 이해를 돕는 도구로 적절히 활용되었다. 무용수들의 뛰어난 움직임과 연기력은 靑春에 대한 관객의 몰입과 감정이입을 끌어내기에 충분했으며, 공감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리고 작품 제작 과정에서는 장면을 리서치하고 움직임을 만들 때에 무용수들이 안무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움직였기에 작품 전반적 흐름과 완성도는 높았다. 그러나 공연과 해석의 과정에서 안무자의 성찰을 정리해보면, 장면과 장면 사이의 브릿지를 움직임으로 더 집요하게 표현하고, 솔로와 군무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작품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마지막 장면에서의 무용수 각각의 개성을 살린 움직임을 탐색하고 장면의 구성을 간단하게 연출하여 마무리 지었다면 좋았을 것으로 사료된다.